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2021년 전교인 온라인 성경통독대회 ◎

- 일시 : 1월11일(월)~ 2월5일(금) / 매일 2시간씩 20일간(토, 주일 제외)
 오전반 : 오전 10시 ~ 12시(2시간)
 저녁반 : 저녁 8시 ~ 10시(2시간)
 * 오전반, 저녁반 성경 본문은 동일합니다.
 * 수요일예배, 목요일영성기도회는 성경통독대회로 대신합니다.

□ 온라인 통독방법 / 실시간 방송(Youtube)

1. 오전반이나 저녁반 중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다.
 2. 정해진 시간에 각 처소에서 대전중부교회 성경통독 실시간 영상에 접속한 후 댓글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여 출석을 체크한다.
 3. 실시간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읽기표에 체크를 한다.
 4. 단, 온라인 실시간 영상을 활용할 수 없는 성도들은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읽고, 성경읽기표에 체크를 한다.
 5. 체크한 성경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교구 교역자들에게 문자나톡으로 보낸다.
- * 완독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고윤설 목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송경호
부목사 고윤설	오상옥	김종명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김수중
전도사 김명순	조정옥	전상순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김민준(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정기조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1. 1. 10 (NO. 63-2)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 일 예 배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성도여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우릴 사용하소서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홍순영 장로(2부) / 이원명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시편 2:1-12
설교	시편의 묵상(2편) :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516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주일오후 성경읽기예배	오후 4:00 (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10:00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권영은 자매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갈 3:13-14 “십자가 앞의 떨림” 		방역2.5단계로 쉽니다.		성경통독대회로 대신합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방역2.5단계로 쉽니다.		성경통독대회로 대신합니다.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안내위원	
	2 부	이원명 장로		
	3 부	송경호 장로		
주일새벽	금 주		식당봉사	금 주
	내 주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수요일예배	1 부		차량운행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2 부			3호/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청년부	오후 2: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11일)	최정숙 고한례 최영희
화 (12일)	송정숙 유순례
수 (13일)	공종호
목 (14일)	김종명 김명순
금 (15일)	이원명
토 (16일)	이종욱
주일 (17일)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이연옥 집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자정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욱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 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10일(주일)	11일(월)	12일(화)	13일(수)	14일(목)	15일(금)	16일(토)
성경	창32-34	창35-37	창38-40	창41-43	창44-46	창47-출1	출2-4

♠ 꽃꽂이

금주: 정기조 장로, 이종옥 권사 * 내주: 김다빈 청년

♠ 환우

☞ 3교구

- * 이명숙 권사(가양3-5, 하길식 집사 아내) - 체장암 수술 / 강남세브란스병원
(1교구 하상균 집사 모친, 김명희 집사 시모)
- * 이영학 집사(남3-2, 김성순 집사 남편) - 대장암 수술 / 충남대병원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 · 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 자 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 역 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 숙 한 성 도 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증 보 기 도 학 교		6주	기 도 헌 신 자 훈 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1월 행사 안내

* 1월 11일(월)~ 2월 5일(금) /

2021 온라인 성경통독대회

코로나19 방역 2.5단계에 따른 교회생활 안내

1. 주일 2부,3부,4부(청년) 예배는 비대면(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수요1부, 목요일성기도회는 성경통독으로 대신합니다.)
2. 새벽예배, 주일1부예배, 주일오후예배, 수요2부예배, 주일학교예배는 중단합니다.
3.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중에는 교회시설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5. 교역자와 직원은 종전대로 업무를 하오니, 필요한 상담과 심방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경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울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두란노아버지학교
- 군선교연합회
- 주바라기선교회
- 대전기독교방송
- 대전극동방송
- 대전CTS방송
- 기독교임즈
- 총신대학교
- 대전신학교
- 동대전중학교
- 가양중학교
- 명석고등학교
- 내륙흥 노인회
- 가양2동 노인회
- 신도 노인회
- 더퍼리 노인회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시편의 묵상(1편) :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시1:1-6)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시편이다. 시편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즉, 성경의 복은 소유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다. 우리는 참된 복을 소유에서 찾지 말고, 존재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데 힘써야 한다. “복 있는 사람”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1.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먼저 머리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악한 행동을 따라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악한 자들과 함께 지내게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어느 곳에 머무느냐 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무엇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멀리하자.

2. 복된 말씀을 가까이합니다.

(2절)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는 악인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문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말씀을 “즐거워” 하며, “묵상”한다는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단순히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듯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한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1)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2) 차례로 읽어나가라. (3) 읽으며 느끼고 깨달는 구절을 표시하라. (4) 기도하고 찬송하라. (5) 점차 시간을 늘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자.

3.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물의 근원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서,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는다. 그 결과 열매가 풍성하며 만사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의 삶을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뿌리내리자.

4. 복된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여기서 ‘인정하신다’의 표현은, 살펴준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지켜주시고, 보살피는 것을 말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서서 지금까지 존경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셨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으며,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5일(금)	찬 260장	눅 2:1-7	구유에 누웠으니
--------	--------	---------	----------

요셉과 마리아는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는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베들레헴 여행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기에, 그분의 탄생이야말로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알고 있습니까?

16일(토)	찬 407장	눅 2:8-21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	----------	-------------

천사는 목자들에게 다윗의 출생지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가 바로 구세주인 줄 알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고, 그 아기에 대해 천사가 한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공공이 생각했는데, 이는 예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진실로 세상의 구주임을 분명히 깨닫고, 천사의 지시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낚새 나는 구유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나는 원수 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17일(주일)	찬 95장	눅 2:22-40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라
---------	-------	-----------	-----------------------------------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곧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25절). 오랜 세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선지자였습니다(37절). 하나님의 섭리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보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다림이 가장 큰 믿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희주(김종분) 김근홍(문정애) 김동춘(유덕자,김은지) 김순희b 김연수 김영한 남민우(이현선) 류창선(배영미) 문정신 박명환(김은주) 박연희 박은희 서은경 송낙수(송정숙) 양영준(서영순) 양홍순(임몽룡) 오연자 원혜선 이기철a 이상우(이성희) 이순원(배주열) 이종욱 임용식(우현주) 임인성(조정예) 장지이 전용주(권연옥) 정경희 조규연(서정순b) 최영일 최은지 최정숙 편무화 한영희 한혜숙 황안순(유춘성) 황현숙 무명

감사헌금

고윤설(박혜란) 권소열(김순이) 권혁주 김경덕(이수진a) 김다빈 김다정 김동춘(유덕자) 김두경(김경선) 김미숙 김성현a 김수종(김영자b) 김영천(남정혜) 김용기 김재순 김정구 김형민(윤혜성) 노광호 문희정(하용호) 박종권(주정화) 서성모 양주선 오명숙 오상욱(김진남) 오세종(김윤정b) 오연자 윤상애 윤재룡 이수진b 장은혜 전숙인 전용주(권연옥) 정구훈 정기조(이종욱) 정윤옥 정태웅 조규연(서정순b) 조상용(김혜경) 조화연 진은호(박상미) 한영희 홍정원 무명

선교헌금

강숙녀 강희주(김종분,윤상희) 구은정 권연옥 김근홍(문정애) 김연수 김영미 김영준 김영한 김희경(장정금) 남민우(이현선) 박연희 서은경 손부영 오연자 유현아 이덕성 이순원(배주열) 이여진 이윤암 임인성(조정예) 전용주 정경희 정기조(이종욱) 조규연(서정순b) 채기병 편무화 한혜숙 황덕순(김기환) 황현숙 무명

성탄감사헌금

공혜숙 김석순 김영한 김종분(강희주) 김주원(조수희) 김형민(윤혜성) 서은경 송낙수(송정숙) 송봉우 심윤종 양영준(서영순) 양홍순(임몽룡) 오연자 이윤암 임용식(우현주) 장지이 정홍식(유영란) 조규연(서정순b) 하용호(문희정) 한영희 무명

신년감사헌금

강용주(김경희) 고윤설(박혜란) 공종호 공혜숙 권영숙 김경덕(이수진a) 김근홍(문정애) 김다정 김동선(홍근성) 김동원 김동윤(이연옥) 김동춘(유덕자) 김명순 김문수 김성현a 김수종(김영자b) 김신(맹경연) 김영재(인치경) 김영천(남정혜) 김옥단 김옥진 김유경 김용기(정윤옥) 김은경(현기훈,현오주) 김재범 김재열 김정자a 김종렬 김종명(이은진b) 김혜울 김희경(장정금) 남민우(이현선) 류순례 문정신 문정혜 문희정(하용호) 박명환(김은주) 박순규(김기성) 박순자a 박원진a 배정만(강숙녀) 변정순 서성모 서은경 손부영(장원봉) 송경호(김옥희a) 심윤종 안장현 안철호 양영준(서영순) 양주선 오명숙(박충순,박상엽,박상요) 오상욱(김진남) 오연자 윤복단 윤성수 윤수진 윤재룡(송영희) 윤종명(전숙인) 이남희 이노아 이명국 이명숙(하길식) 이명자a 이수진b 이원명(우종선) 이윤성 이은희 이인창 이정아 이종덕 이해정 이희진 임인성(조정예) 임현성(유정화a) 장수권(임형선) 장지이 장현우 전상순 전승영(오계숙) 전용주(권연옥) 정경희 정구훈 정기조(이종욱) 정태옥 정태웅 조관희 조국진 조상용(김혜경) 조성일 조정욱(노광숙) 주경애 채기병 최민지 최영란b 최윤호 최재민 최정숙 최태호 편무화 한순옥 함수경 현성주 홍순영(최옥선) 홍영숙 황덕순(김기환) 무명

꽃꽂이헌금 이명숙(하길식) 정기조(이종욱) 최정숙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1일(월) 찬 200장 눅 1:39-45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가 전해 준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서둘러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40절).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동일하게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를 갖게 된 비슷한 은혜를 공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에 엘리사벳의 격려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해서 마리아를 축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며 두 여인이 받은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됐고, 마음 한편에 남아 있던 두려움은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한량없는 은혜를 나누며 서로 힘을 얻도록 도우십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누며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12일(화) 찬 357장 눅 1:46-56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는 ‘내 영혼’(46절), ‘내 마음’, ‘내 구주’(47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48절) 등의 표현을 통해 비천한 자신을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양에는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뿐 아니라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 부자를 심판하시고, 비천하고 주린 자를 도우시며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예수님을 통해 이뤄질 일들이지만, 누가는 이를 과거 시제로 표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고백은 한 개인의 고백이자, 공동체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신실한 고백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고백은 내 입술과 내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3일(수) 찬 425장 눅 1:57-66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은 관례를 따라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로 하자고 추천했지만, 엘리사벳은 ‘요한’으로 짓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이란 이름은 유대 지역의 남자들 가운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습과 유행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대한 여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당시에 사가랴는 아기의 출생과 관련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가 징계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맞물리는 징계를 받았던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배웠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사가랴에게서 징계를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진정한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믿음을 지녔습니까?

14일(목) 찬 484장 눅 1:67-80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요한을 얻게 된 사가랴는 주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68~69절). 사가랴의 찬양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된다는 예언이 담겨 있으며, 주님을 ‘똥은 해같이 임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소개합니다(78절). 이처럼 사가랴는 기적으로 얻은 소중한 아들에게 집중하기보다 그가 섬겨야 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공활을 베푸시는 분이요(72절), 그분의 공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가 이뤄질 것을 확신했습니다(77~78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삶도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